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을 기념하는 성령강림절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늘 오후 1시 교회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원로 나들이가 이번 주 21일(화)에 있습니다. 울봄식물원(퇴촌)으로 갑니다. 교회에서 아침 8시 30분까지 모여주세요.

: 생협에서 경남 하동의 무농약 매실을 예약 판매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약 받고 판매는 6월 16일에 합니다. (대 10kg 68,000원, 5kg 34,000원/ 중 10kg 54,000원 5kg 27,000원...)

즐겁게 기념할 날이 많은 오월이지만 아프게 기억해야할 날도 많은 오월입니다.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아픔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행 2:1~21 / 시 104:24~34, 35b  
 롬 8:14~17 / 요 14:8~17

욥 42:1-6

식 당 봉 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림 한양미 오유경 최미자 김필순 곽상준  
 다음 주 식당봉사 : 유경순 이은옥 박혜경 박미란 하미림 임보람 김윤수 김훈동  
 오늘설거지봉사 : 이나단 이경민 최재욱 이수정 최경미 정영우 김지윤  
 다음 주 설거지 : 이종배 고정림 김용훈 황현성 최양순 박지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살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단비 같은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어둡고 냉랭한 가슴에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허망하고 샅된 생각들을 몰아내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33년 전 집권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를 짓밟던 자들에 대해 일어난 민주항쟁의 희생자들의 넋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그날의 희생과 아픔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명자 김용태 박정숙 김정길 최숙화 김종락 박영신 김중수 이순정  
 류준모 심호선 문홍일 배근수 김금순 서수진 성지현 송형철 윤수진  
 윤주원 최윤선 이광섭 이정은 이호원 임주빈 최현옥 장동훈 정은선  
 정우선 정종삼 정현모 조경자 조병주 차해심 노미향 최다미 최재욱  
 이수정 최철수 광권희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홍복선 홍순복

### 감사헌금

강찬양 김운정 김정진 김혜정 김태성 박미연 신진식 변혜정 유영순  
 강미정 이기남 이인태 조홍래 최종원 한규숙 무명

### 생일감사헌금

장영숙

### 녹색꿈헌금

장순배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문홍일 이미혜 백혜숙

	장혜숙	백혜숙	장혜숙	오승경
	노순옥	박성희	배부례	오승철
	김재흥	최경미	야외	정복순
	장영숙	신영신	박경선	김진경
	정경례	진정숙	문금석	정선희
	박홍재	광권희	문복순	정배삼
	권미숙	박미영	심순	배삼순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심순
	이형숙	윤수진	윤수진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안정현
	정영선	서정순	야외	정경현
	박혜경	조항미	심	정현
	김재흥	오자영		숙
	이범석	이근식		주
	신진식	광상준		혜
	장영숙	김세진		숙

## 사격명령

사격명령이 떨어지던 날/ 탄창 속의 M16A1 신형 탄알처럼  
 징발된 민간차량에 가지런히 탑승되어/ 비포장도로를 달려갔다.  
 정갈한 저녁 바람은 예년처럼/ 보리수염을 쓸어가고  
 개인호를 파고 들어앉은 우리 앞에  
 인도지나의 풍문으로 들던 안개가/ 호남평야를 기어오고  
 바리케이드 뒤에서 몰래 탄창 제일번 실탄을/ 거꾸로 장전하는 짧은 순간  
 가장 깊은 밤의 이슬이/ 어깨를 밀고 들어왔다.  
 그 밤 터무니없는 죽음의 가도에서  
 고려중기의 젊은 농군을 만나고/ 亡伊(망이)와 亡所伊(망소이)를 만나고  
 정중부의 다듬어진 칼과 보현원의 차디찬  
 화강암에 이마를 부딪고 쓰러진  
 그 혼한 죽음의 기록도 없는 한 야사의/ 문신들을 만났다.  
 십칠번 국도 위에서 역사를 우롱하던 바람은  
 한 찰나도 빼놓지 않고 피 묻은/ 삐죽새 울음을 컷가에 실어오고  
 부대끼는 밤 구름을 능선 위에 옮겨왔다.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를 당겨도  
 이제 나의 개인화기는 발화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역사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역사여  
 구름 그림자에 놀리운 이 캄캄한 오월의 국도 위에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당신도 헤아리고 있는가.

-도종환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죽음과 절망의 기운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과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는 하늘 군대가 되어 사십시오. 아멘. 메말라가는 세상을 한탄할 뿐 그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더욱 주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운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늘 군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조항미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혜경 권사	이윤진 선생 곽상준 집사

5	영접위원	한상의 김종락 이성범 정현숙 박영신 한상경
	헌금위원	한완식 정영선

믿음으로 읽는 글

## 온전한 복음을 따라

신앙을 전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부분일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몸과 혼과 영이 모두 포함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속해 있습니다. 신앙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있고 아이들과 노인들이 있으며 주일과 평일에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나누고 구분합니다. 그것에 따른 상처와 폐해는 너무나 큽니다.

지금까지 단비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들은 분리와 단절의 세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거리상 또는 심정적으로 분리된 채 외로운 여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노년에 방치되거나 요양원에 보내져 극한 외로움 속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생업을 핑계로 분리와 단절의 세태를 용인합니다. 농촌의 현실은 경제적인 단절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의 경우에도 많은 면에서 단절의 아픔을 견디며 자라 왔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없는 마을에서 한편의 결핍을 감수하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정서와 사고가 얼마나 단편적인지를 보며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뛰어나지만 다른 쪽으론 세계가 닫혀 있습니다. 두루두루 전체를 살피는 균형 감각이 부족합니다. 특히 몸을 쓰는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살핌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날의 편리주의와 경제적 성취에 대한 강박관념은 다양한 삶의 모양들을 획일화시키고, 다른 각도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여유와 앞뒤를 살필 줄 아는 주의력은 사라지고 오로지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

생을 효율의 눈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전인적인 존재방식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의 파편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전체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부분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할 새 없이 잃어버린 것이거나 세태라는 폭풍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전체를 위해 가치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비록 시골에서 자랐지만 자라는 동안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가운데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미칠 값진 요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 부모와 윗세대, 그리고 이웃, 거기에 더하여 악기를 다루거나 예술 활동을 통해 얻는 감각 등입니다. 아이들은 땅을 밟고 지냈고 생명을 기르는 농사를 경험했습니다. 부모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친척들이 그들 곁에 있었고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예술에 대한 연마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삶의 지향을 높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차 아이들의 삶을 구성하는 데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지 공부만을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보다 균형 잡히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선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사는 동안 분리와 단절에 의한 아픔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들을 간구하며 애를 태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에서 마음 아팠던 일들이 다음 세대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어찌 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던지고 앞으로 교회가 감당할 사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짐없고 치우침 없는 원숙한 모양의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역을 세워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어서 더 많은 수고와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견을 가져 봅니다.

- 정훈영, 「단비교회 이야기」 중에서